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9. 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9 / 1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지금이 바로 그때
길상사 시간여행	09	길상사 가람에 대해서 ④
산다는 것 그린다는 것	15	산다는 것 그린다는 것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19	세상의 슈바이처들
나의 아름다운 벚꽃 동산	24	마지막 날처럼
시십청심	27	내일은 없다
모단에썬이	28	문필과 가책
세계 일주 시작이 반	30	케이프타운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4	나이떡
따뜻한 이야기	38	역경을 이겨낸 예술가
알아두면 좋은 복지 정보	40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사진·이가은 「주」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1월 1일 발행 / 통권 287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지금이 바로 그때

글·법 정(法 頂)

우리들이 태어나서 살아온 20세기 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에 대해서 신문과 방송마다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묻게 됩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끊어짐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금을 긋고 토막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 자체는 마치 허공처럼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존재합니다. 시간은 순간순간의 삶과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사의 한 기자가 저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스님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평소대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고 있을 뿐이지 미래에 대해선 관심이 없소.”

저는 솔직히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바로 지금이지,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임제 선사의 법문만이 아니고, 부처님과 조사들이 한결같이 말해 온 진리입니다.

21세기가 되었든 또 무슨 세기가 되었든, 그 시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한번 지나간 것은 이미 버려진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자세히 살펴 잘 알고 익히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아함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거나 가뭇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일을 자세히 살피고, 잘 알고 익히라는 것입니다.

새해맞이를 하겠다고 몰려든 사람

들 때문에, 지금 동해안 일대의 호텔과 숙소들이 이미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해가 알면 인간들을 보고 웃을 것입니다. 어제 뜬 해와 오늘 뜬 해가 다른 해입니까? 똑같은 해입니다. 이것은 분별과 분석을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의 호들갑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늘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맨 처음 해가 뜨는 곳이 남태평양 무슨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기를 쓰고 간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서양문명이 온 지구를 휩쓸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 오염되어서 같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의 ‘십육관법十六觀法’에 해 뜨는 것을 보는 관법, 즉, ‘일상관해를 생각하는 관日想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고스럽게 뉴질랜드나 동해안에 갈 것 없이 방

안에 앉아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구름이 끼나, 아무 상관없는 해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 그것이 진짜 해돋이입니다. 그렇지만 허공에 떠오르는 해, 그것은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밖을 향해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떠오르는 해도 보고 달도 봐야겠지만, 덩달아서 그렇게 휩쓸리는 것은 현대인들의 허약한 면입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해 뜨는 일만 아니라, 세상에서 떠드는 일을 내가 관여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여해야 할 일이라면 가까이 동참해서 거들고,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자기 삶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광 불법사에서 출가해 호남 일대에서 살던 학명鶴鳴 선사의 어록 가운데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읊은 구절이 있습니다.

묵은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개인의 삶과 전 인류의 삶이 되돌아보십시오. 인류란 무엇입니까? 개개인의 집합체입니다. 나와 나, 그들의 집합체입니다. 일찍이 옛 성인들은 이런 개체와 전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불교의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개체와 전체의 상관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화엄 사상을 압축해 놓은 신라 의상 스님의 〈법성계〉에 실린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성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法性圓融 無二相 諸法不動 本來寂

법의 성품은 모든 현상의 근원이며, 모든 현상의 근원은 본래부터 원만하고 막힘이 없어서 원래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흔들림이 없이 본래부터 고요하고 질서 정연하다는 것입니다.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

一中一切多中 一即一切多即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말처럼 들리지만 깊이 참구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화와 균형의 소식이 있습니다.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

一微塵中舍十方一切塵中亦如是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다 들어 있고, 일체의 티끌마다 온 우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고 할 때, 그 개체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일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가 곧 전 인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곧 전 우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곧 하나를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 불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후쯤 되면 출퇴근 시간이 아 니어서 지하철이 덜 붐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시각장애인 여인이 한 손에는 돈 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구걸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듯, 출입문 쪽 기둥을 꼭 붙잡은 채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자인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 열차 칸에 있던 두 분 수녀님도 그렇고, 모두가 못 본 척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흔

히 있는 일입니다. 아마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때 휠체어를 탄 하반신 장애인인 그 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출입문 쪽 기둥을 붙잡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각장애인 곁을 지나면서, 자기 무릎 위에 있던 돈통에서 동전을 집어서 그 여인의 바구니에 넣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모른 채하는데, 하반신 불구의 장애인이 자기가 구걸한 돈통에서 동전을 집어서 그 시각장애인 여인의 바구니에 넣어주고 지나가더군요.

‘내 앞에 오면 주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불자는 이 광경을 보고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나 자신이 진짜 장애인이로구나.’하고 스스로 한탄했다고 합니다. 서로 불행한 처지이지만, 동전 한 닢이라도 나누어 가지려는 그의 마음이, 신체장애와는 상관없이 건강한 사

람으로 보이더군요. 이런 일은 우리가 늘 겪는 일입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개체가 전체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의 비밀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베풀 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찾아가서 베풀어야 합니다. 베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본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 나서야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베푼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바로 지금이지 그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애의 과정에서 후회되는 일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각오로써 새해를 맞는다면 우리 삶에 맑은 바람과 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1999년 12월 12일 길상사 창건 2주년 법문

길상사 가람에 대해서 ④

글 • 홍정근

■길상7층보탑(吉祥七層寶塔)

탑은 범어의 스투파에서 온 말로, 한자로는 ‘탑파(塔婆)’라고 적는다. 처음으로 탑이 세워진 것은 기원전,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후 석가모니의 사리를 똑같이 여덟 개로 나누어 인도 전역에 각기 탑을 세워 안치한 것이 시초이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4세기 후반부터 약 2백 년간 목탑이 건립되어 오다가 백제 말에 이르러 처음으로 석탑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길상7층보탑은 2012년 10월 영안그룹 백성학 회장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청평산장 내 위치한 9층 석탑[탑신부 9층, 기단부 2층, 상륜부 1층]/가로 210cm*세로 210cm*높이 약 10m 50cm]을 길상화보살과 법정 스님



의 뜻을 기리고 길상사와 성북성당, 덕수교회가 함께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종교 간의 교류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무상으로 기증할 뜻을 밝혔다. 이에 길상사 자연 경관과 조화를 위해 탑신부 2개 층을 낮추어 7층으로 하여, 2012년 11월 11일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오장경(금강경, 원각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능엄경), 금강저, 오불(五佛), 108 침향염주, 다라니 등을 봉안하여 세웠

다. 이후 미안마의 제1보궁 우뚜리와 완사 스님이 1,600년 전 고탑(古塔) 해체 과정에서 직접 출토하신 부처님 오색정골사리, 구강사리, 응혈사리와 제자인 목건련존자, 마하가섭존자, 라홀라존자 등의 사리를 2013년 8월 25일 봉안하였다.

지혜와 용맹을 상징하는 네 마리의 사자가 기둥 역할을 하는데, 입을 연 두 마리는 교(敎)를 상징하고, 입을 다문 두 마리는 선(禪)을 상징한다. 그리고 네 마리의 사자 중앙에 조성된 사면불의 수인(手印)은 정면에서 왼쪽으로 선정인(禪定印),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통인(通印: 시무외인 및 여원인), 전법륜인(轉法輪印)을 하고 있다. 기증 당시에는 신장상이 새겨져 있었으나 2013년 8월 25일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면서 사면불로 바뀌 조성하였다.

■마애약사여래좌상(磨崖藥師如來坐像)

관세음보살상 옆에는 작은 바위에 화려하거나 정밀하지 않고 약병을 손으로



받쳐 들고 앉아 있는 약사여래좌상(가로 48cm*폭 37cm*높이 95cm)이 있다. 약사여래는 한국에서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미륵불과 함께 가장 널리 신봉되는 부처의 하나로서, 과거부터 약왕(藥王)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면서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시키고자 열두 가지 대원을 세웠다. 그 대원(大願) 중에 중생들의 정신적 질병과 육체적 질병의 해결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무엇보다 질병의 쾌유를 가장 큰 소원으로 삼는다. 중생들의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다.

마애약사여래좌상은 1998년에 기증된 것으로 파악하며, 마애불 받침대는

현재 극락전 앞마당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어느 누가 기증을 했고, 언제 조성을 하여 어떠한 인연으로 길상사에 모셔졌는지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해 아쉬움이 있으므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길상사 경내에는 불교 석조물이 여럿 있다. 그러나 점안식(點眼式/불상을 조각하거나 그린 다음 진언을 외우며 의식을 갖추어 불상의 눈에 붓으로 동자를 찍는 의식)을 한 석조물은 아니다. 길상사 7대 주지 덕운 스님이 길상사를 찾는 이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석탑, 석상 등을 조성하였는데, 특히 극락전 앞마당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아미 부처님(2015년 조성)은 좌선을 하는 도중 발가락이 간지러워 긁고 있는 모습이 익살스러워 포토존으로 인기가 있으며,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웃음을 전해주고 있다.

지장전으로 가는 계단에 올라서면

탁발하는 나한상(2014년 4월 조성/높이 195cm)을 만날 수 있는데, 부처님의 다섯 비구 중 한 명인 ‘앗사지 존자’로 보인다. 율장대품에 따르면 최초 다섯 비구가 제자가 됨으로써 승가가 형성되었다. 일 년이 지나 60명의 아라한이 생겨나 교단으로서 체제를 갖추었고, 부처님과 제자들이 전도하러 길을 떠났을 때, 사리불이 앗사지 존자가 걸으면서 경전을 독송하는 의식 장면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분소의를 입은 수행자의 모습은 남루하였지만, 발우와 가사를 입은 비구의 엄숙한 몸가짐이 깨어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된 사리불 존자는 앗사지 존자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길상사 경내 개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잔잔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석조미륵반가사유상(높이 122cm)이 있다. 익히 알려진 국보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본떠 계곡에 조성

하였다. 반카사유상 바로 위쪽에는 숲 속 나무그늘에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좌선대가 있다. 법정 스님과 길상화 보살이 길상사를 창건하신 뜻을 살려 도심 속의 생태사찰로서 바쁜 현대인을 위해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찾으며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길상화(吉祥華) 보살 공덕비

극락전을 바라보며 왼쪽으로 물이 흐르는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 나무다리 건너 길상화(吉祥華, 김영한)보살 공덕비를 만나게 된다.

김영한(1916~1999) 여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16세에 금광하



던 친척의 잘못으로 가세가 기울어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조선 권번에 들어가 기생이 되었다. 그녀는 재주와 고운 얼굴을 겸비해 정악계(正樂界)의 대부 하규일 선생에게 정가인 가곡, 가사, 시조 등을 전수받았고, 여느 기생과 달리 시서화와 문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리하여 스승 하규일에게 진수 무향(眞水無香)에서 따온 '진향이라는 기명(妓名)을 받는다. 진향의 재능을 눈여겨보던 조선어학회 해관 신윤국은 그녀가 큰 인물이 될 것을 짐작하여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다. 그러나 신윤국이 일제에 의해 함흥교도소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면회를 신청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녀는 법조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면 선생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여, 다시 함흥 권번에 들어가 기생이 된다. 이때 <사슴>이라는 시집을 발간해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시인 백석(白石 1912~1996)을 만나게 된다.

진향은 백석에게 이태백의 시 <자야

오>에서 따온 '자야'라는 아호(雅號)를 받게 되고, 둘이서 만주로 떠나자는 백석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서 결국 영원한 이별을 맞게 된다.

김영한은 '김숙이라는 필명으로 1939년 삼천리 6월호에 <덕왕의 인상> 과 <취객> 이라는 두 편의 짧은 수필을 발표한다. <삼천리>발행인 김동환이 김영한에게 직접 청탁해서 문학기생의 작품이라는 꼬지를 만들어 그녀의 원고를 실었다. 이후 해방이 되고 6.25전쟁이 나는 하수상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억척같이 돈을 벌고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1953년 중앙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다. 그리고 1955년 성북동 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배밭골에 2만 평의 부지를 사들여 대원각이란 요정을 운영하게 되며, 대원각은 유신과 군사정권 시절 삼청각과 청운각과 더불어 밀실정치의 무대가 된다.

그러던 1987년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명받아 이곳을 범종 소리

가 울려 퍼지는 청정도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스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우리 마음의 연꽃을 심자는 취지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마침내 1995년 대원각을 절로 만들자는 청을 받아들이고, 1997년 12월 14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를 창건하게 된다. 그리고 김영한 여사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한 아름다운 법석에서 법정 스님으로부터 염주 한 벌과 길상화(吉祥華)라는 불명(佛名)을 받는다.

길상화(吉祥華)보살이 된 그녀는 당시 사회를 맡았던 이계진 전 이사로부터 인사말을 요청받자 나지막한 음성으로 "저의 소원은 저기 보이는 팔각정에서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울려 나오는 그녀의 음성에는 곡절 많은 인생의 슬픔

산다는 것 그린다는 것

글 • 최중태

을 넘어서 위대한 비원이 담겨있었다. 천억 원대의 대원각 7천여 평을 아무런 조건 없이 쾌척한 소식을 듣고 어느 기자가 아깝지 않으나는 세속적인 질문을 하자 '이 모든 재산이 그 사람의 시 한 줄만 못 해라는 명언 한마디를 남긴다. 그리고 꽃다웠던 여인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1999년 11월 14일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로 떠난다.

“나 죽거든 하얗게 눈 오는 날 길상현 뒤뜰에 뿌려 달라”는 유언에 따라 다비를 치른 유골은 49재 후 첫눈이 온 도량을 순백으로 장엄하던 날 길상현 뒤쪽 언덕바지에 뿌려졌다.

그리고 2001년 11월 21일 2주기 기제에 맞춰 공덕비를 세워 길상화 보살의 뜻을 기렸다. 공덕비 비문에는 “이 길상사는 시주 길상화 김영한 남이 보리심을 발하여 자신의 소유를 아무 조건 없이 법정 스님에게 기증하여 이루어진 삼보의 청정한 가람이다. 선하고 귀한 그 뜻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돌에

새겨 고인의 2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공덕의 비를 세운다. 마하반야바라밀/ 불기 2545년(서기2001년) 11월 21일/길상사 대중 합장”이라고 새겨져 있다. 공덕비 상단의 타원형은 발우의 형상으로 불교의 공(空)사상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월 5일 공덕비 뒤쪽에 사당(祠堂)을 조성하여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김영한, 진향, 자야, 김숙, 길상화 모두 그분의 이름이다. 한 사람이 다섯 이름으로 살다 간 것만으로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 가능할 수 있다. 기생이었고, 문학가였고, 사업가였고, 우바이(보살)였던 그녀는 나눔이라는 무소유의 실천을 몸소 보여줬다. 그로 인해 길상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에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되고 있다. 이 면을 빌어 다시 한번 길상화 보살님의 무주상보시에 대한 공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림은 왜 그리나. 이 물음은 50년을 생각했는데도 끝이 없다. 아마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다. 이 또한 50년을 생각했는데도 아름다움이란 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부질없는 일을 우리는 왜 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좋은 그림을 만나면 감격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감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나는 요즘 감격을 잊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 하루 종일 또는 지나 깨나 감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좋은 그림을 만날 때 감격한

다.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도 그런 감격이 있다. 감격이란 무슨 현상일까. 나는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서 일한다. 그리는 내가 못 느낀 것을 내 그림을 보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무슨 일일까. 그림 그리는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림 속에 감격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림이라는 표현방식을 통해 가시권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 형상을 통해 감격이라는 충격을 느낀다. 아름다움이란 그런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 그림이 자유롭게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독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래 더 그렇다. 그렇다고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 내 느낌으로 내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인데 말이 그렇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유구한 역사가 있다. 그 수수만만의 손길에서 자유롭게 나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다. 길가에 작은 풀들은 저마다 자유롭다. 그러나 그림이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피카소가 한 말이 자꾸만 생각난다. “내가 어린이같이 그리게 되니까지는 50년이 걸렸다.” 화가의 자유란 그렇게 얻기 어려운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자유를 얻고 싶은 생각을 이제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말이다. 포기해야 자유가 생긴다는 말일 수도 있다. 자유를 얻으려면 자유라는 그 생각을 놓아야 한다. 불가(佛家)에서는 방하착(放下著)이란 말을 한다. 표류가 된다 해도 할 수 없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싶다. 그 생각

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수시로 감격이라는 경험을 한다. 새로 나온 봄색을 만날 때, 벚꽃이 휘날리는 언덕길을 갈 때, 돌된 아기의 너털웃음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은 어떤 기쁨일지도 모른다. 그림 그릴 때 그런 기쁨은 없다. 다만 망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있다. 생각이 중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고요의 시간이 있다. 그림은 이성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감성의 움직임 같은 것도 아니다. 무엇이 어떻게 움직여 그림이 되는 것일까.

화가는 모르는 것이 참 많다. 우선 그림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그림을 그린다. 어떤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일까. 그것을 재는 잣대(尺)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분별하는 것일까. 그림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없다.

그림을 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다. 백 년 이백 년의 시간이 걸려 평가되는 수도 있다.

요즘은 그림을 화폐가치로 생각하는 수가 많다. 화가는 돈 벌려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다. 그림 그리는 마음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그야말로 순결해서 물들이 없는 곳이다. 돈은 그림하고 상관없다. 그림 그릴 때 마음은 잠시 세상을 떠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이 행위하는 곳은 죄의 물들이 없는 차원이다. 깨끗한 세계가 있다. 완전히 깨끗한 세계가 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곳은 차원을 달리하는 곳이란 말을 한 것이다. 완전한 그림은 없다. 완전히 아름다운 그림은 없다. 다만 완전한 곳과의 연결이 있다. 그래서 그림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

세계 박물관에는 한없이 많은 그림이 있지만 완전한 것은 단 한 점도 없다. 사람이 완전한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옳을 성싶다. 그런데도 감격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완전함’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 비할 수 없이 큰 것, 형언(形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

만일 내게 지금 꿈이 하나 있다면 완전한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꿈꾸던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것일 수 있다. 그 모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기보다 그것을 만나고 싶다. 어떤 대면(對面)이다.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을 것 같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그냥 습관처럼 그림을 그린다. 요즘 알게 된 것인데, 아! 안 된다 하는 것이다. 왜 이렇

세상의 슈바이처들

글 • 곽영미

계밖에 안 되는 것일까. 한 치만큼이라도 나는 진전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도 또 선을 넘지 못하고 여기까지다. 나는 매일같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아침에도 확인하고 저녁에도 확인한다. 여전히 잘 안 되는 것, 그 내 흔적을 보면서 나는 쓸쓸하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삶인데 덜된 것을 남겨놓고 결국 나는 가야 한다. 모든 가치, 거기에 대한 물음을 허심탄회하게 내려놓고서 나는 지금 오직 안 된다는 것만을 확인한다. 이것은 사

실이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화가에게 일하는 시간은 명상의 시간이다. 자기 성찰의 시간이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정일 뿐이다. 사람이 숨을 쉬듯 화가에게 일이란 숨 쉬는 것과 같다. 일종의 휴식이라 할 수 있다.

안다는 것이 무언인가,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부귀나 영화는 또 무엇인가. 그 인간적인 것들을 다 바다 건너에 놓아두고 오로지 맑은 것으로 남는 것. 인간은 시원(始原)의 그곳을 그리워한다.

최종태 • 1932년 대전에서 4남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 2학년 때부터 이동훈 선생에게 그림지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들어가 김종영 선생과 장욱진 선생을 만났다. 1958년 조소과를 졸업하고 1959년부터 국전에 출품하여 문교부장관상과 추천작가상을 받았다. 그림과 조각 못지않게 글쓰기를 좋아하여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등 7권의 수상집과 '교회조각' 등 8권의 화집을 냈다. 여러 잡지에 글을 쓰고 여러 성당에 성상을 만들어 앉혔으며, 호암미술관·대전시립미술관·가나아트 등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가톨릭미술상·서울시문화상·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김종영미술관장·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회원이다.

2009년 8월 24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열흘 뒤면 나는 아프리카로 떠난다. 아프리카로 가게 되다니,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진다. 오늘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었다. 열흘 뒤에 '국경없는 의사회'로 떠난다는 말을 하니 다들 놀라는 눈치다. 몇몇은 국경없는 의사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라고 묻기도 했다. 친구들은 나의 선택이 불안정하고 걱정이 되는 것 같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친구들의 불안감에 또다시 걱정이 밀려온다. 하지만 걱정은 여기까지다. 앞으로 열흘 뒤면 나는 떠난다. 아프리카…… 왜?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대학 때부터 10년간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했다. 의사 자격증을 땀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었다.

'아, 이제 의사가 되었어!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됐다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오랜 세월 공부에만 매달려온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계획이 서지 않았다. 건전지를 다 써버린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에서 빈둥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신문 기사를 나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국경없는 의사회' 의사 모집 광고가 실

려 있었다.

“여기에 가라고요?”

나는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 보았다.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다.

“힘들겠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니? 갈지 안 갈지는 네가 선택하렴.”

아버지는 신문을 놓고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기사를 들여다보았다.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힘들거야. 난 이제 막 의사가 되었는데, 거기에선 돈도 벌 수 없잖아. 난 저런 곳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없어…….

그날 밤, 많은 생각으로 잠을 설쳤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걸 바라보았다. 밝은 해가 뜨면서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집이 보이고 나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빛이 보

이는 바깥 풍경이 어찌나 감동적인지,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와 경험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국경없는 의사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곳에서 내 에너지가 다시 충전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2009년 9월 4일

외로운 날

사람들은 아프리카 니제르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잘 모른다. 나는 니제르에서 6개월 동안 의료봉사를 할 예정이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내륙국가인 니제르는 다른 아프리카들처럼 식량이 부족한 빈곤국이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먹을거리가 없다 보니 아이들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도 많다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다. 우리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의사와 행정가, 약 같은 물자를 보급하는 담당자들이 함께 활동한다. 난 소아과 의사니 당연히 아이들을 진료할 것이다. 아이들은 어떨까? 한국에서 진료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한국을 생각하니 가족도 보고 싶고, 조금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 얼른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내일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2009년 9월 5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침에는 설 새 없이 일했다. 임시 병원으로 만들어 놓은 텐트로 아이들이 밀려왔다. 파도처럼 밀려왔다는 느낌뿐이었다. 아이들이 쾅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웃으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대답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든 모양이다. 그래도 나는 기뻐다. 내가 도와야 할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기쁘기까지 했다. 적어도 아침

까지는…….

오후 근무를 끝내고 한참 동안 울었다. 아마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운 것 같다. 오후 근무 동안 여섯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몇 시간 동안에 여섯 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는걸……. 바로 내 눈 앞에서 말이다.

세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다. 굶어 죽었다는 뜻이다. 상상한 뼈만 드러내고, 죽 한 사발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손을 쓰기 전에 죽었다. 다른 세 명의 아이들은 전염병으로 짧은 생을 마쳤다. 병원에 너무 늦게 온 것이다. 주사 한 방이면, 아니 약만 먹어도 바로 나올 수 있는 병인데.

동료인 히네스가 말했다.

“이곳 아이들은 그렇게 죽어가. 약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병인데도 여기까지 오다가 치료가 너무 늦어서 죽지. 여기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그 아이들이 늦은 게 아니다. 내가 늦은 것이다. 우리가 늦게 온 것이다. 며칠만 더 일찍 왔더라도 그 아이들은 살았을 것이다. 히네스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힘내!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 그들이 저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작은 바람에 가지가 꺾이고 뿌리가 뽑힌 채 언제 쓰러질지 모른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히네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울음을 그쳐야 진료를 할 수 있을 테니. 하지만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이 흐른다. 바보같이…….

2010년 2월 15일

그래도 떠나야 한다나…

누군가 시곗바늘을 돌려놓은 것처럼 6개월이 금세 지나갔다. 여기 아이들과 이제야 조금 친해졌는데, 다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여전히 이곳은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하다. 그런데도 떠나야 하다니 나는 내일 아이티로 떠난다. 지난달에 있었던 아이티 지진으로 그곳은 지금 지옥이라고 한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아이티로 떠나야 한다.

요즘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내가 봉사를 하고 있으니 대단하다고 으스대거나 자랑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뽐낼 만한 것이 못 된다. 봉사는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다. 그래야 지구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2년 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의사로 일할 것이다. 그리고 내 열정

이 다하는 날, 다시 국경없는 의사회 많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나는 혼자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느끼기 위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더 기 위해

국경없는 의사회는 1971년 프랑스에 처음 세워졌다. 정치나 종교에 관계없이 고통받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 긴급 의료 구호를 펼친다.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요원과 보급 요원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난민촌, 분쟁지역, 자연재해 발생지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 펼쳐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기부 : 국민은행 817-01-0253-129 (사)맑고 향기롭게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소식과 법정 스님 글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후원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마지막 날처럼

글 • 백형찬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매년 24만 5천 명이나 된다. 이 중에는 1만 명이 넘는 자살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마다 발생하는 암 환자 13만 명, 치매 환자 40만 명, 중풍 환자 60만 명과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무려 600만 명이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찌 이뿐이겠는가. 고시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휘두른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정신이상자에 의해 등이 떠밀려 달리는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기도 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죽음을 가깝게 대하며 살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죽음준비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과대학을 비롯한 간호대학 정규 교육 과정에서조차 죽음준비교육은 들어가 있지 않다. 단지 사회 교육 차원에서 일부 종교단체가 임종을 앞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호스피스 교육과 죽음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죽음체험 하루 피정’ 정도가 고작이다. 나는 죽음에 관한 명언들을 수년간 모았다. 그것들을 엮어 「죽음을 읽다」라는 책을 만들었다. 정성을 한없이 들인 책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책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책을 받아든 사람들은 한

결같이 ‘왜 이런 책을 나에게 주는가?’라는 표정이었다. 아직도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다.

‘내일을 향해 쏘라’ ‘스팅’ 등의 영화로 유명한 미국 명배우 폴 뉴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뉴먼은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밖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뉴먼즈 오웬’이라는 식품 회사를 설립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수익금 2억 달러를 자선사업에 썼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를 ‘훌륭한 연예인’이라 칭송한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도 죽는 날까지 보람 있게 살다 간 사람이 있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 이주일 씨이다.

그는 죽기 전까지 금연운동을 벌였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라는 말을 남겨 적지 않은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 그런데 몇몇 연예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들이 죽음준비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가볍게

자신의 생명을 끊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평생 죽음준비교육을 한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하게 한다. 이는 죽음의 여러 모습을 보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각오를 하라는 것이다. 대학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죽음 과목을 개설하였고, 죽음 관련 학회도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죽음학회를 설립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죽음(竹陰)’을 연구하는 학회냐?’고 묻는다고 한다. 이런 수준이다. 일본에서 4월 15일은 ‘유언의 날’이다. 변호사연합회가 주관하여 ‘유언’ 캠페인을 벌인다. 전국을 돌며 유언에 대한 강연을 하며,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상속에 대한 법률적 상담도 해준다. 존엄사협회에서는 ‘리빙 윌(생전유언) 남기기’ 캠페인을 벌인다. (최철주, 「해피엔딩」 지식인 그룹이 국민들에게 죽음준비교육을 하는 것이다.

죽음준비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는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특징을 잘 살피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유아기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일종의 '상실감'을 처음으로 체험하는 시기이다. 청년기는 대학입시 실패, 취업 실패, 실연 등으로 '작은 죽음'을 체험한다. 이럴 때 죽음의 의미와 죽음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장년기는 부모나 친척, 직장 동료 등의 죽음을 자주 보게 되고, 이혼, 경제적 파탄, 해고 등의 위기로 죽음을 '가깝게' 느낀다. 노년기는 질병과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빈곤 등으로 죽음을 '피부'로 느낀다. 그래서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혼자서도 죽음준비교육을 할 수 있다. 우선 장기기증을 약속하는 것이다. 뇌사 시 장기와 각막을 기증하기로 사회와 약속하고, 장기기증등록증을 늘 휴대하고 다닌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죽음 가상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자신의 영정 사진이 걸린 방에 들어가 관 속에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비록 간단한 죽음 체험이지만 인생관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열심히 살아라.”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이며, 책장암 환자였던 고(故)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남긴 말이다.

내일은 없다

글 • 윤동주

내일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도
잠을 자고 돌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내일은 없나니
.....

백형찬 •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나 고려대에서 생명과학자를 목표로 공부했다. 짧은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아 현재는 서울예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필가로 등단하여 '출가 4박 5일'로 작품상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예술혼을 찾아서> <죽음을 읽다> 등이 있다.

윤동주(1917~1945) 시인 • 일제강점기에 짧게 살다간 젊은 시인으로, 어둡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고뇌를 사색하고,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고민하는 철인이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얼마되지 않는 시 속에 반영되어 있다.

문필과 가책

글 • 나도향

글이라고 쓰기를 시작하기는 이력 저력 한 육칠 년이 되었으나 글다운 글을 써 본 일이 한 번도 없고 남앞에 그 글을 내놓을 때마다 양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첫째 마음에 느끼는 바나 충동을 받은 바를 그럴 때마다 써 본 일이 없고 다만 남의 칭에 못 이겨 책임을 면하기 위해 쓴 일이 많으니 글로서 글을 썼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작년 일 년 동안에는 몸이 매인 데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느라고 글 쓸 여가는 물론이요 어떤 때는 밥 먹을 틈이 없는 일까지 있는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잡지나 어느 신문에서는 가끔가끔 “소설을 써 주오” “무슨 감

상을 써 주오” 하고 청구를 하면 한 두 번은 거절을 해 보기까지 하나 그 래도 셋째 번에는 마음이 약한 탓인지 차마 거절은 하지 못하고 대답을 해 놓기는 놓으나 사실 하루 일을 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 늦도록 돌아다니다가 밤중에야 집에 들어가니 몸이 피곤하여 붓을 잡으려 하나 붓 잡을 힘이 없어 그대로 자리에 누운 채 잠이 들어 버린다. 참으로 우리의 생활을 아는 이들은 어느 점까지 동정할 것이다.

원고 수집 기한은 닥쳐온다. 사실 몇 사람 안 되는 글 쓰는 이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의 창작이면 창작 감상 문이면 감상문을 바라고 믿는 잡지는 경영자들의 초급한 생각을 모르면 모

르거니와 알고 나서는 그대로 있지 못할 일이라, 하는 수 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붓을 잡는다.

나는 이것을 일종의 모험이라고 부르고 싶다. 약간의 힌트를 얻어 두었던 것으로 덮어 놓고 붓을 잡으니 마치 지리학자나 탐험가들이 약간의 추상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 같다. 자기가 지금 시작한 첫 구절 그 뒤에는 어떠한 글이 계속 될지는 써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니 거기에 얼마나 불충실함과 무성의함과 철저하지 못함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급기야 써서 그것을 잡지사나 신문에 보내면 그것을 활자로 박아 내놓는다. 그 내놓은 것을 다시 읽을 때에 부끄러움이란 다시 말할 여지없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내놓고는 다시 읽어 보는 때가 극히 적다. 이와 같이 나의

창작 생활이 계속된다 하면 나는 그 창작이라는 것을 내버려서라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게 하고 싶다.

더구나 안으로 가정, 밖으로는 사회로, 그리 맘대로 되는 운명에 나지 못하고 정신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 든든하고 풍부한 천성을 타지 못한 나로서 무엇이 깨닫고 느끼고 사색하는 것이 아직 부족한 때 붓을 잡는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까지 생각을 한다.

더구나 아직 수양 시대에 있어야 할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는 이가 있다 하면 그런 무리가 없을 것이요, 또는 나 자신이 창작가나 또는 문인으로 자처를 한다 하면 그런 건방진 소리가 없을 것이다. 어떻든 무엇을 쓴다는 것이 죄악 같을 뿐이다.

나도향(1902~1927) 소설가 • 본명은 나경손(羅慶孫), 호는 도향(稻香), 필명은 빈(彬). 서울 출생으로 배재보통고등학교를 거쳐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수학했다. 1921년(백조)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짧은 시간에 〈청춘〉(어머니)〈환희〉등의 장편소설과 중·단편소설 〈물레방아〉〈병어리삼룡이〉등의 명편을 남겼다. 폐결핵으로 요절했다.

케이프타운

글 • 강인철

다시 새날이 밝았다. 새롭게 떠오른 태양은 더욱 찬란했다. 아프리카를 북에서 남으로 훑어 내려온 맨 끝 자락 케이프타운, 거기 아름다운 워터프론트 항구가 있었다. 희망봉으로 가려는 무리와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마구 뒤섞여 와글와글하다. 사람 냄새 물씬한 시장이 있어 좋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진심으로 위했던 4인의 별들과도 조우할 수 있어 더 좋았다.

백인으로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프레데리크 데 클레르크 전 대통령, 인권 운동가인 테즈먼드 투투 전 가톨릭 대주교, 흑인민족운동 지도자였던 앨버트 루톨리 그리고 벨슨 만델라! 네 분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동상

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색다른 의미였다.

항구에서 30분 남짓, 로벤 섬에는 만델라를 비롯한 흑인 인권 운동가들을 수감시켰던 감옥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만델라는 그곳에서만 18년이라는 긴 세월 옥고를 견뎌야 했다. 당시 거기 수감됐던 흑인들은 자유를 빼앗겼음은 물론 동물과 다름없는 취급을 당했다고 한다. 최근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감방에까지 들어가 면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빠졌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다운타운에서 멀지 않은 언덕 위에 보캅(bokaap) 마을도 있다. 마을 전체가 커다란 크레파스처럼 보였던 그곳은 17~18세기 강제로 이주한 말레

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집들이 제각각 다른 색으로 알록달록 칠해져 있어 유별나다.

주소가 없던 마을 초창기 자기 집을 구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색을 칠했다고도 하고 유색 인종을 차별하고 있는 백인들에 대한 저항의 표시도 가지각색의 현란한 원색으로 집 전체를 칠했다고도 한다. 둘 다 맞는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수군댄다.

11개 언어를 공용어로 쓰고 다양한 종교까지 공존하며 흑백 갈등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이들의 외침은 '무지개 나라 건설'이라고 한다. 비운 뒤 땅이 굳고 무지개가 피어오르듯 이들에게도 하루속히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으면….

사람, 시장, 여행

낮선 곳에서 시장市長만큼 자유로운 곳도 없다. 주로 재래시장이었던 탓에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했지만 마음만은 편하고 좋았다. 딱히 볼일이

없어도 장터를 어슬렁거리다 보면 볼거리 먹거리에 즐길 거리까지 덩으로 만나 거기서 말씨, 맵시, 인정, 문화 그리고 그들 삶의 맛과 멋을 오감으로 느끼며 사람을 읽을 수 있다.

이곳 아프리카의 노천 야시장맛고도 여러 곳의 야시장과 수물상시장을 비롯해 중국의 유기전, 고려인의 르눅, 카슈가르의 바자르, 페루 재래시장, 헝가리의 포장마차, 암스텔담 치즈 마켓, 캐나다의 벼룩시장, 뉴욕 피시코트,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갠지스의 갯트 꽃시장, 호주 룩스 마켓, 카트만두의 풍물전, 델리의 혼수 골목,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 프랑크푸르트의 크리스마스 마켓 등 사람 가운데 시장이 있고 거기 원초적 삶이 있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고, 정신일도 하면 앉아 십 리를 보고 누워 백 리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산중 참선만이 농사가 아니라 어디서든 겹겹이 닫힌 마음을 열면 그

릴 수 있을 것 같은 대목이다. 그게 보통의 예상일은 아니지만 가장 솔직한 게 삶이 흐르고 있는 시장이기에 역발상도 거침이 없을 것 같은 곳, 그게 시장의 매력이자 동력이었다.

머리란 본래 복잡한 것이어서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여행 중엔 빈 마음을 유지하는 게 필수요, 우선이다. 계산적인 사고와 고정관념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면 머릿속이 외려 더 어수선했다. 낭패 보기 일쑤다.

나그네의 발걸음에 대지는 무한하고 길은 사람 따라 끝이 없으나 고만고만한 삶들이 거기서 거기인 양 웅기종기 모여 시장을 중심으로 주고, 받고, 나누며 살고들 있다. 그러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면 문화의 충돌에 잠시 어리둥절하지만 그것은 그 땅에 순응하며 살아온 신도불이의 자연스러운 변모일 뿐,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나가나 서로 닮은 게 너무도

신기하고 흥미롭다.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여~” 할머니한테서 많이 듣던 얘기다.

희망봉

케이프타운에서 희망봉으로 가는 길, 대서양의 해풍에 초원이 춤을 춘다. 이름 모를 야생동물들이 물끄러미 쳐다본다. 케이프 포인트에 도착하고도 험궤차로 한 번 더 오른 후에야 비로소 목적지에 닿았다. 그곳은 사방이 온통 바다였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아카씨가 손가락으로 우측 발가락 쪽을 가리키며 저 아래 길게 뻗어 빼죽 솟은 곳串이 바로 ‘Cape of Good Hope’라고 일러준다. 굉장히 크고 우람한 봉우리겠지하고 꿈에서조차 여러 번 그려봤던 ‘희망봉’이었는데 실체는 상상보다 작고 맛땀했다.

이제 걸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은 없다. 서울에서 출발, 지구를 돌아 마지막 땅 끝에서 인도양과 대서양

그리고 그 너머 남극해까지 넘실대는 망망대해를 한 눈으로 훑어보고 있으니 가슴이 쿵쿵거리며 그간의 긴 여로旅路가 파노라마처럼 떠올란다.

사방을 거칠 것 없이 돌아보기에 딱 알맞은 곳에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있었다. 런던, 베를린, 바르샤바, 모스크바, 베이징 그리고 서울 다음에 도쿄가 있어야 할 텐데 ‘SEOUL’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서운하다 못해 분한 생각마저 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지구촌 2백여 개국 중 반만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예술을 자부하며 세계 경제 규모와 국제 올림픽 수준이 10위권을 넘나들고 있음에도 왜 동해를 잃어야 하고 독도가 시뻘거리로 내몰려야 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작금의 주변 국제 정세와 오늘의 냉혹

한 현실이 그러한데 아프리카 땅 끝에 세워진 이정표에 ‘서울’이 들어설 틈새나 있었을까.

국토마저 허리 잘린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 코리아, 아프리카 땅끝에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두 팔 벌려 안아 본다. 밀려오는 파도보다 더 힘들게 저며 드는 허허로움이다. 하지만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외쳐 보고 싶다. 영원하라! 우리나라! 大韓民國!

10여 년 전, 백두산에서 하늘 향해 큰절을 올리고 해를 따라 서역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지구촌 여정을 이제 여기서 거둔다. 도저히 힘들어 중도 포기할 뻔도 했으나 숭한 역경을 무탈하게 버틸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천지신명天地神明께 감사하며 원점元點으로의 회귀回歸다.

그래야 여행이 진정으로 마무리된다 했다.

강인철 • 충남 금산에서 태어나 『에세이』, 『가을호』 등 단행본, 현재 문화유산국민신문사 홍보대사, 서울시교육청 재능기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5부자 라이브 인 USA』(이름이 뭐길래) 등이 있다.

나이떡

글 • 권오분

우리나라 노래 중에 “떡 타령”이라는 게 있다.

떡 사시오 떡 사시오,

정월 보름달 떡이요, 이월 한식 송편이요, 삼월 삼짇날 썩떡이라.

떡 사시오 떡 사시오,

사월 파월 느티떡에 오월 단오 수리취 떡이요, 유월 유두 밀전병이라.

떡 사시오 떡 사시오,

칠월 칠석 수단이요, 팔월 가위 오리 송편, 구월 구일 국화떡이라.

떡 사시오 떡 사시오,

시월 상달 무시루떡에 동짓달에 새알 새미, 선달에는 골무떡이라.

떡 사시오 떡 사시오,

이 세상에서 달마다 떡을 바꾸어 가며 해먹는 나라가 또 있을까? 풍류고 멋이기 이전에 생활이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조상들은 멋과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떡이라는 속성이 밥과 달라서 한번 만들면 여럿이 나누어 먹게 마련이기에 저절로 ‘이웃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예전의 다양한 떡 문화가 지금은 추석날의 송편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너무 쉽게 서양의 빵 문화에 잠식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사람들이 떡은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빵처럼 오븐이라는 기구를 쓰지

않고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뿐더러, 계절마다 나오는 자연의 산물들을 쌀가루에 섞어서 솥에다 보자기를 깔고 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엄마들이 가족에게 만들어 먹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왜 이리도 빨리 사라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정월에는 가래떡으로 떡국을 해 먹고 있지만, 이월의 송편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가는 것 같다. 그래도 삼월의 썩떡은 지금도 심심풀이로 썩을 뜯어다가 조금씩 찌 먹는 엄마들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보릿고개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삼월의 썩이 구황식품이라 하여 생명을 이어 준 풀이었는데 지금은 건강식으로 특별대우를 받고 있으니 쥐구멍에 벌이 든 셈이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어

머니는 조금씩이지만 자주 떡을 만들어 주셨다. 어떤 특별한 사명감이나 전통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 한데 어머니는 계절마다 떡을 해 먹는 풍습을 유지하고 계셨다. 썩떡이나 감자떡, 호박떡은 물론이고 음력 팔월의 송편 등 지금은 떡집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손수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까지도 어머니는 서울에 사시면서 이월 한식에 송편을 빚곤 하셨다.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가족들만을 위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나이만큼, 어머니의 나이만큼, 아이들의 나이만큼 세면서 손가락으로 쌀을 떠서 물에 담그셨다. 나는 옆에서 손가락을 꼬으며 손가락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열심히 소리 내어 세었다. 떡 방앗간에 가서 땀을 쌀가루로 뿜어오면, 쌀 반죽에 검정콩 불린 것을 꼭꼭 박아 손자국이 선명하

게 드러나도록 꺾꺾 주물렀다. 그리고 송편 찢 것을 나이 수만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열 살이 되기 전에야 먹기가 쉽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앉은 자리에서 나이만큼 떡을 먹어야 하니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이를 '영등 할매떡'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일꾼들이 겨우내 쉬다가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바쁠 때가 되었으니 떡 먹고 일 열심히 하라고 주인이 만들어 나누어준 '노비떡'이라고 한다.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들을 위해서도 떡을 만들어 먹일 핑계를 만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멋스러움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스럽기만 하다.

이유도 모른 채 나는 음력 이월이면 곧잘 송편을 해 먹었다. 사 먹는 떡이 너무 달기도 하더니와 보다는 미 있는 떡을 만들고 싶어서 '나이 떡'을 만들기로 했다.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엄마들은 귀찮다고 피하

려고 한다. 나이떡은 팔월의 송편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손가락으로 쌀을 세어서 담그고 아이들과 둘러앉아 자기 나이대로 떡을 만들게 하고 그 떡을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게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추억들이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미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엄마들은 10년 후의 아이들 장래만 생각하는 것 같다. 공부가 끝나고 아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부모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자식에게 재연해 주고 싶은 '무엇'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요즘 엄마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내가 이리도 행복하듯이...

밥상의 즐거움이란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의 잃어버린 미각을 되찾고, 우리의 잊어버린 추억을 되찾을 수 있는 즐거움. 그것도 과거에 사

랑하던 사람들과 나눴던 행복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밥상에 둘러앉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함께 나누는 음식만큼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매일 먹는 비타민보다 더욱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님은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쓰셨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 <공제> 등이 있다.

중앙모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은 2019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와 본모임 홈페이지(http://www.clean94.or.kr)에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인터넷)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본 모임에 등록된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역경을 이겨낸 예술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공연히 떠돌던 역사상 최고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천재 니콜로 파가니니.

그는 연주할 때 엄지손가락을 손등 위로 구부려 새끼손가락과 맞닿게 할 정도로 손가락이 매우 유연했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 덕분에 다른 연주자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복잡한 기교의 연주를 선보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Ehlers Danlos syndrome)' 또는 '마르판 증후군(Marfan Syndrome)'



이라는 유전병을 그가 앓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두 증후군 모두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잘 휘어지고 유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그런 유전병조차 확인할 수 없던 시절이라서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온갖 증상에 시달리며 5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그의 말년의 모습은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증상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

든 그는 평생 자신의 병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수많은 질병과 싸웠고 피나는 노력과 연습으로 위대한 예술을 창조할 수 있었기에 그의 인생에 찬사를 보냅니다.

교통사고로 척추와 골반이 부서졌지만 그 고통을 자신의 작품으로 승화시킨 화가 '프리다 칼로'

피아니스트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손가락이 세균 감염으로 마비되었지만, 손가락이 없어도 작곡은 할 수 있다고 예술혼을 불태운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

음악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청각장애를 딛고 뛰어난 걸작을 세상에 남긴 불멸의 작곡가 '루드비히 판 베토벤'

역경을 딛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위대하고 존경받습니다.

* 출처: 따뜻한 하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 소득지원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40만 명 → **147만 명**)

- 중위소득 30%이하(생계급여) 또는 40%이하(의료급여) 가구
- (생계급여) 급여상한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1종(근로능력 없음), 2종(근로능력 있음)으로 의료이용 지원

2. 자활 사업(4만 6500명 → **4만 8000명**)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집수리, 청소, 가사·간병 등 자활근로 실시
- * 자활급여 인상(시장진입형):일 4.2만 원→5.3만 원(최저임금 70→80% 수준)

● 미래설계지원

1. 청년희망키움통장(5,000명 → **1만 명**)

-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수급 저소득층 청년(15~34세, 근로·사업소득 이 기준중위소득의 20%이상)의 자산형성지원(3년 만기 탈수급시 1,440만 원)

2.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9,800명 → **20,200명**)

- 1) 학업우수인재(신규 1,500명)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중·고등학생(월평균 40만 원 지원)

2) 체육우수인재(신규 1,500명)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등학생(월평균 40만 원 지원)

3) 대학생 해외연수(800명 → **1,200명**)

- 지원조건 : 소득 5분위 이하
- 지원규모 : 1,200명(80명X15개교)
- 1인당 지원금액 : 5백만 원(국고3.5백만 원, 주관대학1.5백만 원)

4) 교외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9,000명 → **16,000명**)

-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멘토 활동을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바우처 지원

1.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연 7만 원 → **8만 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31.3만 원 → **40.6만 원**)

- 생계·의료급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포함 가구

정부가 발표한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이웃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 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중앙모임 소식(02-741-4696)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부금 > 발급

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히 등록한 후원자님은 2019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기부 내역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이용하기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 로그인 > 참여후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도 후원 내역,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기부금 영수증 확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총무팀 02.741-4696)

- 기부금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원자 본인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발송 비용 절약으로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드는 또 다른 힘이 됩니다

길상사 창건 21주년 기념법회 원만회향

1997년 12월 14일, 한국 여러 종교계 어른과 법정 어른스님과 공덕주 길상화보살님을 모시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개원 법회를 봉행한지 어느덧 21주년이 되어 길상사 창건을 축하하는 기념법회를 12월 16일(일) 극락전에서 봉행하였습니다.

21주년 창건 기념 법회는 삼귀의, 찬불가, 헌다, 헌화, 합창단 음성공양, 청법가, 입정, 길상사 주지스님 법문, 모범봉사자 시상(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재무보고 등의 식순으로 봉행되었습니다.

주지 덕일 스님께서서는 은사이신 길상사 창건주 법정 어른스님의 1주기 법문을 되새기며, "절이 생기기 전에 수행이 있었다며, 길상사 사중스님과 신도들이 합심하여 기도 정진하자"는 내용으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법문 후에는 길상사에서 모범적인 수행생활을 하신 불자님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 모범적으로 참여하신 회원님에게 감사패와 공로패 시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길상사가 있기까지 회주 법정 어른스님과 공덕주 길상화 보살님, 그리고 현재 8대 덕일 주지 스님에 이르기까지 소임을 보신 모든 스님들과 여러 신도님들의 공덕에 감사드립니다. 길상사가 앞으로도 더욱더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경희대 주거환경개선 동아리 <미라클 팀> 봉사활동 진행

12월 1일, 경희대학교 주거환경개선 동아리

미라클이 「맑고 향기롭게」 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당선된 후 다섯 번째 희망의 집고치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봉사는 성북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안내로 고려대 인근 한 가정의 방 하나를 도배하고 장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대상자의 집은 내부에 놓인 짐이 많았고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핀 상태였습니다. 벽지도배와 장판 교체를 위해 벽지 재단, 도배, 풀 만들기, 벽지 붙이기 등 도배의 전 과정을 봉사자들이 직접 시공했습니다. 추운 날씨와 협소한 공간 속에서 봉사자들이 함께 작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함께 웃으며 협동하여 무사히 작업을 마친 미라클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학생들이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익히고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맑고 향기롭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연말 김장을 담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1월 29일(목)에 맑고 향기롭게 회원을 비롯하여 KTX나눔이회 등 봉사자 110여 명이 동참하여 3,000여 포기 김장을 담아, 11월 30일(금)에 23개 주민센터를 통해 484가구에 김장 15kg씩 개별 포장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인 월곡청소년센터, 해평맹인복지회, 성북동 노인정, 마가렛 방과후교실에도 총 600kg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 김장을 할 때마다 항상 날씨로 걱정이 많았지만 올해는 다행히 미세먼지도 멎고, 바람이 불지 않는 포근한 날씨 덕분에 모



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김장 나눔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참여하신 봉사자분들과 연말에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절임배추와 양념장 하역을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김장 나눔에 십시일반 후원을 해주신 분, 먼 거리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가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봉사자팀별 송년모임 진행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팀별로 송년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활동을 마치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봉사자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해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올 한해도 맑고 향기롭게 활동에 마음을 내어주시고, 공감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모임이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모든 회원님과 봉사자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욕심내지 않고, 양보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년 한해도 맑고 향기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사무국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길상사 신행 단체회와 신도님의 관심과 참여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500여 가정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에서 10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내부 공사로 인해 운영을 중단합니다. 당분간 봉사활동이 중지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3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반발식당 내부 공사 관계로 잠정 중단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2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9, 26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일반사업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3-129
 -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 농협 029-01-199412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정해금 후원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벗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자 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장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기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 태극권, 형익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유인부 할머니 지원활동**: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유인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신수동에 지역 화원을 의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향기로은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환경및시찰주변쓰레기줍기캠페인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신정합동차례

- 일시 : 1월 1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월 5일(토) 오후 6시 ~ 8시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월 6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불교대학 9기 졸업식

- 일시 : 1월 12일(토)
- 장소 : 설법전

성도재일 철야기도

- 일시 : 1월 12일(토) 오후 9시 ~ 1월 13일(일) 새벽 4시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월 12일(토) 오후 8시 ~ 1월 13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설법전

성도재일

- 일시 : 1월 13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1월 20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월 23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1월 29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일춘기도 및 삼재소멸기도

- 일시 : 2월 2일(토) 오전 9시 50분 ~ 2월 4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설합동차례	1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1월 5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초하루 법회	1월 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불교대학 졸업식	1월 12일	오후 2시	설법전
성도재일 철야기도	1월 12일	저녁 9시 ~ 새벽 4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월 12일	저녁 8시 ~ 새벽 3시 50분	설법전
성도재일	1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1월 2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월 23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월 2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 해주세요.

정기후원/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덜 쓰고 덜 버립니다